美 AI 쇼크에 코스피 5100선 추락… 엔비디아 실적이 변곡점

'반도체 편중' 코스피 직격탄
삼성 4.47%, SK 7.89% 주가 하락
매물 받을 국내 투자자 자금 줄고
美 기준금리 인상 공포까지 겹쳐
젠슨 황 복귀, 앤트로픽 상장 '주목'



코스피가 3.59% 내린 5100.50에 거래를 마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산 평단(평균 매수 단가)은 바라지도 않는다. 19만원대에서 버티기로 했으면 좋겠다."

16일 코스피가 5100선 초반으로 곤두박질치자 온라인 증권 커뮤니티엔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쏟아졌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과 블루웨이브(미국 민주당 상·하원 압승) 등으로 인공지능(AI)의 미래에 잿빛 그림자가 드리운 영향이다. AI 투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누리는 호황을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 증시에서 거래 대금과 증시 대기자금까지 줄어들면서, 미국발 AI 우려가 국내 증시의 출렁임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AI 투자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어느 쪽이 확산되느냐에 따라 반도체주와 코스피가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 AI 둘러싼 악재, 코스피에 더 가혹

이날 코스피는 3.59% 하락한 5100.50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4.47% 떨어진 19만6800원, SK하이닉스는 7.89% 하락한 112만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1조 380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28~29일 두 회사의 역대 최대 실적 발표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는 것은 확인됐지만, 미국발 악재에 AI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탓이다.

코스피는 반도체 호황 덕에 올 상반기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크게 상승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선 주요국 증시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중이다.

이날 종가는 종전 최고치인 9114.55(6월 22일)보다 약 44%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편중 구조가 낳은 결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전체 시총의 46%에 달한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49%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해외 AI 데이터센터의 투자·건설 차질 같은 작은 소식 하나에도 증시가 요동친다.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의 '팔자' 매물을 받아줄 국내 투자자 자금도 줄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5월 평균 130조4400억원에서 이달 88조6659억원으로 약 41조원(32%) 줄었다.

주가 하락기에 매수세가 약해져 매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이날 52.64로, 지난 9월 말보다 22% 상승했다. 이 수치가 클수록 투자자들이 향후 큰 출렁임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 증시 변동성 잡을 호재도 AI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계기는 엔비디아의 CEO 리스크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발 불확실성에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종목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외국인의 매도 속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의 낙폭이 커졌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일단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15일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CEO 자리 복귀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 CEO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투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 서버용 D램·낸드 수요를 늘리는 핵심 동력이다.

국내 증권가는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를 반영해 2027년 영업이익 전망을 잇따라 높였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 전망치를 기존보다 20% 높인 약 624조원으로, SK증권은 SK하이닉스 전망치를 12% 높인 약 488조원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공포까지 겹쳤다. 지난 10일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보다 0.4% 오르면서 예상치인 0.3%를 웃돌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지표 발표에 앞서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0.3% 안팎 이상 오르면 12월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17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18일),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19일)으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주주환원이 한국 증시를 부스트업할 것으로 봤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1일 발간한 '한국, 르네상스가 온다' 보고서에서 "3~5년 내 코스피 1만선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면서 한국 경제와 증시가 구조적인 재평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그룹 가운데 SK·한화·현대자동차·두산의 지배구조 개선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삼성과 LG, 롯데, 카카오, 셀트리온, CJ, 신세계 등은 '중립'으로 분류하는 등 한국 기업의 'DNA'가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아영 기자

aykim@metroseoul.co.kr

"내년 平 증시 19% 수익… 가치평가 매력적"

골드만삭스, 平 기업 이익 증가 기대
H주, 인도증시 '비중 확대' 의견
AI 설비 투자 증가 속도 둔화 분석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올해 한국과 함께 아시아 증시 상승을 이끈 대만의 투자의견은 '시장 비중'으로 낮췄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티머시 모가 이끄는 골드만삭스 전략팀은 내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일본 제외 아시아 지수가 달러 기준 19%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주가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이 지수는 지난 6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고점 대비 약 13% 하락했다. 연초 이후로는 달러 기준 약 11% 오른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투자 여건이 올해보다 덜 우호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하반기 주가 조정에 이미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전략팀은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는 매력적이며, 역내 시장 간 편차도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내년 성장세에 부담을 줄 것으로 봤다. 골드만삭스는 AI 관련 투자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인 H주와 인도 증시의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렸다. 일본에 대해서도 기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골드만삭스는 별도 보고서에서 AI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AI 설비투자 규모는 더 커지겠지만, 기업의 추가 지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예전만큼 우호적이지 않아 투자 증가 속도는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채권 발행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고 주식 발행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줄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김혜원 코스콤 AX·R&D본부장(앞줄 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열린 사내 AI 코딩 해커톤 'ㅋㅋ톤' 본선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코스콤, 사내 AI 코딩 해커톤 'ㅋㅋ톤' 열어

36개 팀 중 11개 팀 본선 진출
'내 업무 불편함을 AI로 해결' 주제

코스콤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사내 AI 코딩 해커톤 'ㅋㅋ톤' 본선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직군과 코딩 경험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대회에는 36개 팀이 기획서를 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11개 팀이 본선에서 개발한 도구를 선보였다.

참가팀은 '내 업무의 불편함을 AI로 해결'을 주제로 도구를 개발했다. 개발 과정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해 가상 데이터만 사용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코스콤 전사 AX 추진단은 업무 개선 효과와 사내 AI 환경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4개 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사내 기술 행사 '코스콤 테크 서밋 2026'에서 열린다. 대상 수상팀은 행사에서 개발한 도구를 직접 발표한다.

김혜원 코스콤 AX·R&D본부장은 "이번 'ㅋㅋ톤'은 업무를 가장 잘 아는 현업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AI로 직접 구현하며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WFE 연차총회 참석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이 제65차 WFE 연차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인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WFE는 세계 각국의 정규거래소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

정 이사장은 총회에서 나스닥,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홍콩거래소 등 주요 거래소 대표들과 거래시간 확대와 증권 토큰화가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

정 이사장은 18일에는 사마라 코헨 블랙록 글로벌 시장개발 총괄과 별도로 만난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거래시간 연장과 결제주기 단축 방안을 설명하고,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금투협, 日서 자산운용 혁신사례 점검

日 금융청, 정부연금투자펀드 방문

금융투자협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26 자산운용 GIS(Global Insight Series)'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표단은 일본 금융청과 정부연금투자펀드(GPIF), 현지 자산운용사 등을 방문한다.

일본 금융청에서는 신NISA 도입 성과와 자산운용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본다. GPIF에서는 공적연금이 장기 수익을 위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살피고, 연기금이 자본시장에서 맡는 역할을 논의한다.

운용사 방문에서는 상품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블랙록재팬에서는 투자·위험관리 플랫폼 '알라딘'의 사업화 사례와 글로벌 상품을 일본 시장에 맞춰 내놓는 전략을 살펴본다. 미쓰비시UFJ자산운용 등 현지 운용사들과는 저비용 인덱스펀드, 연금상품 개발, 해외 사업 확대 사례를 공유한다. 일본 로펌 모리 하마다 앤 마쓰모토에서는 금융규제 변화에 따른 신사업 기회와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률·제도적 쟁점을 논의한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자산운용산업은 국민의 장기자산 형성과 노후자산 증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일본의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운용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K-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교보증권, AI로 임직원 주도 업무 개선

'AI-DX 실무혁신 프로젝트' 마무리

교보증권은 임직원 디지털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DX 실무혁신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부터 임직원들이 현업의 개선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해결책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I 리터러시 교육과 직무별 실습, 전문가 피드백 등 단계별 과정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이 개발한 솔루션 가운데 ▲보안점검 자동화 ▲투자설명서 판독기 ▲펀드판매 통합관리 ▲예산 현황 관리 ▲회계 이상거래 탐지 ▲리스크 투자정보 관리 등 6개 과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최종 발표회에서는 실용성과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회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최우수 프로젝트로 뽑혔다. /김아영 기자